

## 가나가와 관광 안전 선언

가나가와 현에는 근대 일본의 막을 연 요코하마,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가마쿠라, 오다와라 성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옛날 시가지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오다와라 등 매력 넘치는 관광지들이 가득합니다. 하코네, 유가와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이름 높으며 단자와, 오야마의 푸르른 산들, 미우라 반도를 시작으로 쇼난 해안, 마나즈루 반도를 잇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안선 등 자연 환경도 풍부합니다. 가나가와는 관광 자원의 보고로 연간 1억 8천만 명이 넘는 손님들이 가나가와 현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또한, 가나가와 현은 수도인 도쿄와 인접해 있으며 작년에 국제공항으로 거듭난 하네다 공항과도 매우 가까워 교통이 대단히 편리합니다.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가나가와 현의 각 관광지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가나가와 현은 물도 공기도 사람들도 지금까지와 아무런 변함없이 건강하고 활기로 가득합니다.

저희 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더욱 많은 분께 전해 드리고자 현과 시정촌, 민간이 하나가 되어 '힘내자! 일본, 활기찬 가나가와 재발견 캠페인'이라는 관광 캠페인을 현의 전 지역에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찾아주신 많은 관광객분들이 가나가와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가나가와의 활기찬 모습을 직접 실감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활기찬 가나가와'를, 또한 피해 지역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활기찬 일본'의 모습을 많은 분께 전해나가하고자 합니다.

활기차고 아름다운 가나가와 현 관광지의 개성과 매력을 알리고 일본 전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손님을 모시고자 저는 지금 '가나가와 관광 안전 선언'을 실시하는 바입니다.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가나가와를 부디 꼭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관광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1년 5월 23일

神奈川県知事 志保 祐治